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년 9월 2일(금)
즉시 보도 가능

작성: 외교비서관실

배포: 국민소통관장실

윤석열 대통령, 더그 듀시 美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9.2(금) 15:00-15:30 간 방한 중인 더그 듀시(Doug Anthony Ducey)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애리조나주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진출 기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3만명의 애리조나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인 애리조나주의 故 매케인 상원의원 등 역사적 유대에 더하여, 듀시 주지사가 한-애리조나 간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애리조나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진출하여 투자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듀시 주지사는 한-애리조나 간 협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애리조나에 더욱 활발히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리조나주 차원은 물론, 미 의회 인사들과도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우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적시 투입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듀시 주지사의 관심을 환기했으며, 애리조나 한인사회의 발전과 애리조나 거주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듀시 주지사는 전문 인력 확보 문제가 애리조나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 애리조나주 내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한-애리조나간 관광객 및 유학생 교류 활성화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끝>